

NH-Amundi

시장 전망 & 추천 상품

October 2025 No.105

NH-Amundi자산운용
WM연금마케팅본부

작성기준일 : 2025년 09월 30일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1021호]

(2025.10.14~2026.10.13)

 NH-Amundi자산운용

시장전망

· CIO 칼럼	03
· 국내 주식 시장 전망	04
· 국내 채권 시장 전망	05
· 해외 주식 시장 전망	06
· 해외 채권 시장 전망	07

CIO 칼럼

미 연준 금리인하 사이클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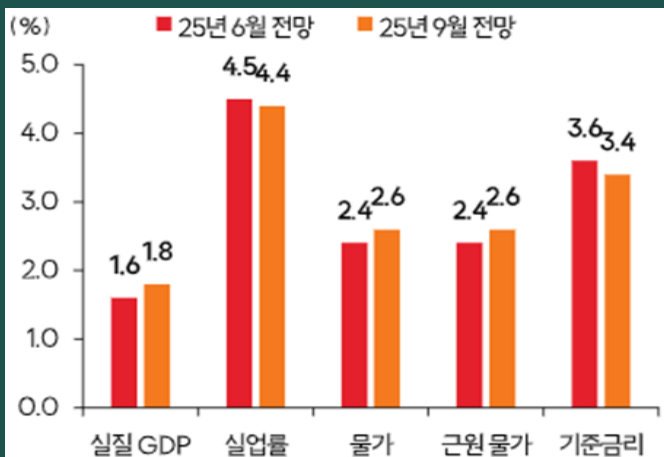
미 연준이 지난 9월 18일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했던 인플레이 우려는 여전하였습니다. 26년 PCE 물가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6%로 상향 조정되었고, 성장률 전망도 25년 GDP 성장률을 기존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고, 26년 전망치 역시 기존 1.6%에서 1.8%로 0.2%p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에는 고용시장의 둔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FOMC 회의와는 다르게 수개월간 지속된 고용지표의 큰 폭의 둔화로 향후 연말까지 2번의 추가 인하를 점도표에서 시사하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연준인사에 임명된 마이런 이사는 빅컷(50bp 금리인하)을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금리인하 압력이 가시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다소 냉담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기준금리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인 2~3회 인하가 아니고, 1번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가와 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제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9월 FOMC SEP



Source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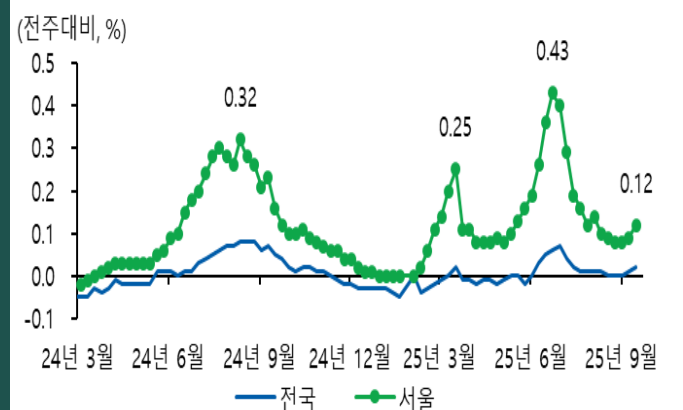
부동산 및 환율 움직임에 깊어지는 한은의 고민

미국의 금리인하 사이클 돌입과 달리 한국은행은 좀처럼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경기우려가 고용지표를 제외하고는 크지 않음에도 내년까지 총 3회 이상의 금리인하를 시사하였지만, 한국은행은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부진과 수출환경 악화 등의 경기하락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불안으로 인해 인하시점을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6/27 대책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43%에서 0.08%까지 하락 하였으나, 다시 0.12%까지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4분기 중 한 차례의 금리인하를 실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의 내수와 수출 환경은 일시적인 재정정책으로 개선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상반기 추가 1회 인하를 포함해 최종 기준금리는 2%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이후에도 시장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Source : 한국부동산원

한수일 부문장

NH-Amundi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총괄



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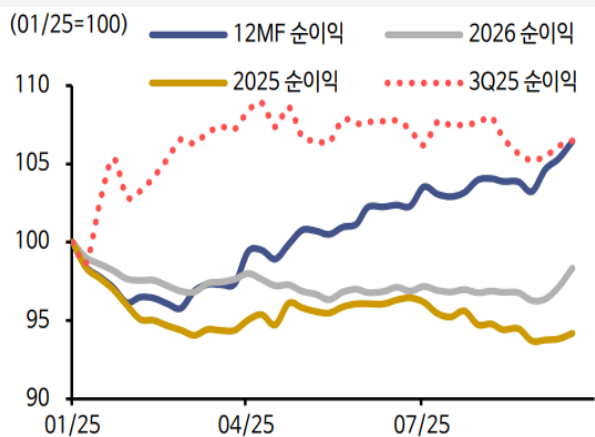
시장전망

9월 KOSPI는 8.98%, KOSDAQ은 8.03%를 기록했습니다. (9월 24일 종가 기준) 8월 숨 고르기 양상을 나타냈던 KOSPI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IT하드웨어 업종의 강세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IT 하드웨어, 방산, 기계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유틸리티, 철강, 운송, 건설 등이 부진했습니다. 한편 미 연준은 컨센서스와 다르지 않게 25bp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50bp 인하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2025년 9월 들어 KOSPI 2025년과 2026년 연간 순이익 전망치가 모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반도체 업황 개선이 주도한 결과입니다. 반도체는 KOSPI 지수 상승의 약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Micron 실적발표에서 의미 있었던 부분은 AI, HBM 뿐만 아니라 일반 서버, PC, 자동차/산업용 등 오랜 기간 부진했던 레거시 수요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는 점입니다. 2년 여간 지속된 메모리 업체들의 HBM 중심 캐파 할당은 일반 서버를 시작으로 레거시 전반에 공급 축소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여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업종 상승에 대비하는 동시에 글로벌 상승 사이클 다른 한 축인 산업재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구축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한편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에 대한 이견이 어떻게 좁혀질지, 그리고 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구체적인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KOSPI 연간, 분기, 12개월 선행 순이익 추이



* 출처: 신한투자증권

추천 펀드

NH-Amundi 필승 코리아 증권 투자신탁(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투자 포인트]

1. 세계정세 변화 속에서 **향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Core Portfolio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정책변경 등의 환경변화**를 포착하여 수익향상의 기회로 활용

Satellite Portfolio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운용보수의 5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



* 2025년 8월 31일 기준.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2	A2e	C-P1	C-P2
선취수수료	1%이내	0.5% 이내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18%	0.17%	0.27%	0.26%
운용보수	0.5%			
기타보수	수탁 0.02%, 사무관리 0.017%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채권 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9월 국고채 금리는 전월과 같이 주로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다 월말에 들어 상승세가 확대되었습니다.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내 인하 폭 확대 기대로 국고채 금리는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연준 의장 및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 재개 등으로 금리는 재차 상승했습니다. 관세 인하를 위한 대미 투자 관련 합의가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미 정부가 대출·보증이 아닌 현금 투자를 주장하는 가운데 펀드 규모 증액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화 절하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국채 선물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었습니다. (9/25일 기준, 국고 5Y 전월 말 대비 +9.5bp)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에서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은 연내 3회 인하를 시사하였으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고용의 큰 폭 둔화는 이민 정책 변화 등에 따른 공급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소비는 견조하고 투자 전망 또한 밝아 경기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10월 인하 기대감도 조금씩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은의 높은 금융 안정 경계감이 확인된 데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재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더라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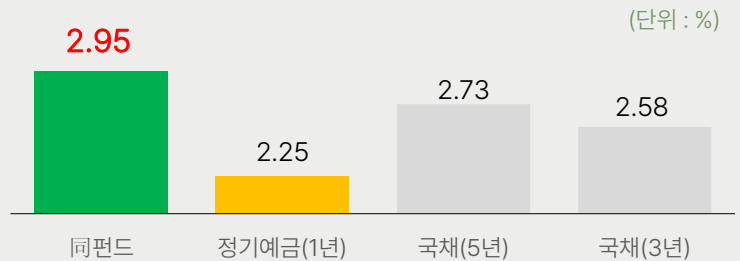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하나로 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1 2 3 4 5 **6**
위험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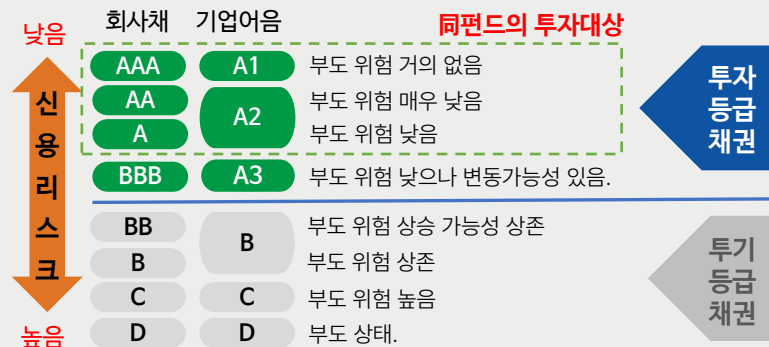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회사채, CP 등에 투자하여 **국채 및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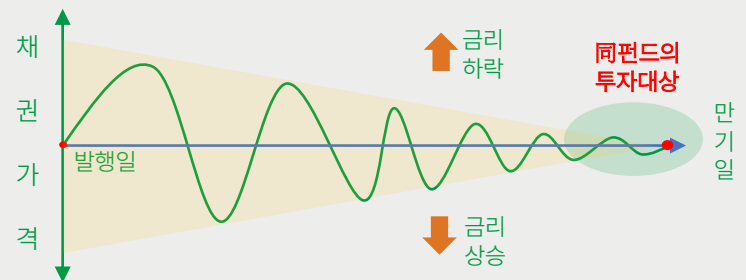
*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공시된 1년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사용. 펀드 및 채권은 YTM기준
* 출처 : 제로인, 은행연합회(25년 9월 30일 기준)

2. **투자등급 이상의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 출처 : NH-Amundi자산운용

3.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에만 투자하여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 출처 : NH-Amundi자산운용

[펀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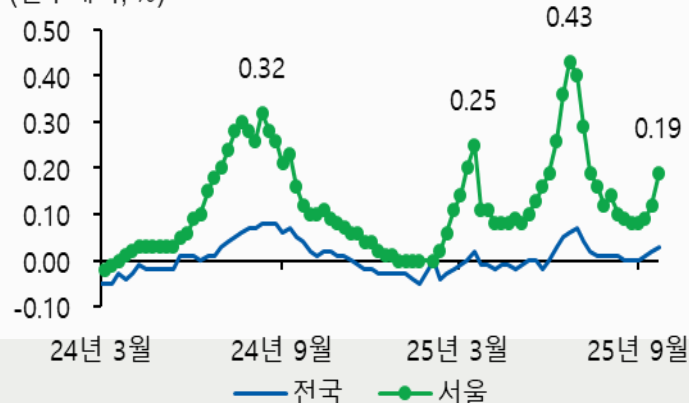
펀드 유형	증권형(채권),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2	C	C-P1	C-P2
선취수수료	0.3%이내	-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05%	0.30%	0.19%	0.18%
운용보수	0.075%			
기타보수	수탁 0.01%, 사무관리 0.01%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전주대비, %)



* 출처 : 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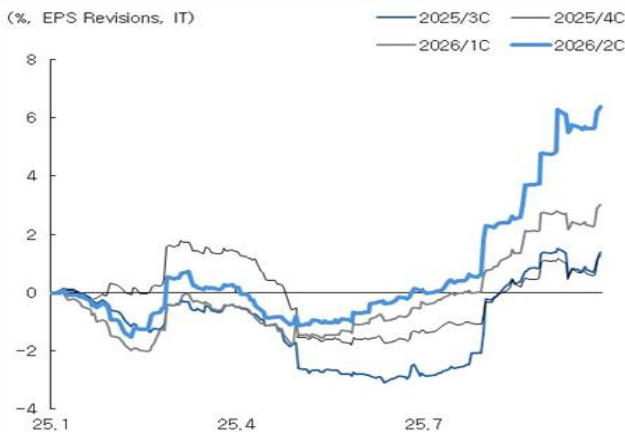
해외주식 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9월 글로벌 증시는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가 동반 상승하며 강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월 초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6월 지표는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되는 등 고용 시장의 둔화가 확인되었으나, 이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었고, 양호한 기타 경제지표와 AI와 관련한 기업의 투자 확대 움직임 등이 증시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월 중순 진행된 미 FOMC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고, 다소 비둘기파적인 회의 결과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결국 금리 인하를 통하여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10월 글로벌 증시는 월 초 한국시장이 연휴로 장기간 휴장하는 가운데,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과 버블에 대한 우려, 미국 정부 섀다운 가능성에 따른 경기지표 발표 지연에 대한 우려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이 뒤섞여 단기적으로는 다소 혼란스러운 장세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술주를 중심으로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AI 도입의 가속화와 그와 관련한 기업 실적 전망 상향 움직임이 아직은 증시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둔화 움직임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가운데, 양호한 유동성 환경과 AI라는 강력한 성장 테마가 맞물리며 글로벌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AI 산업의 핵심인 IT 업종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치



*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Bloomberg

추천 펀드

NH-Amundi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H/UH)(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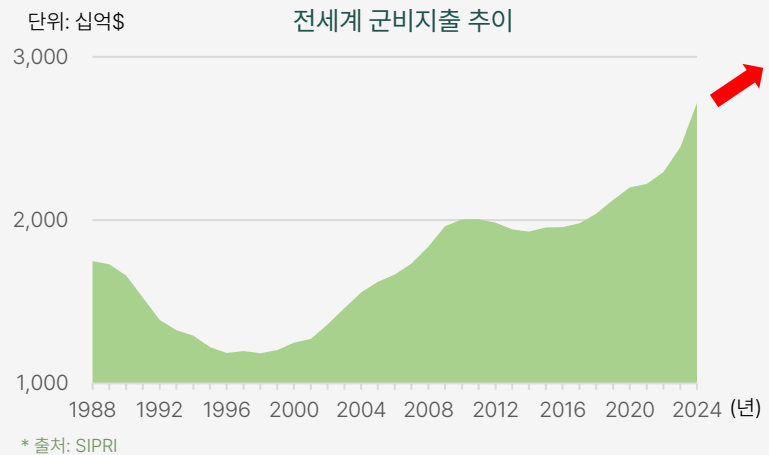
1 2 **3** 4 5 6
위험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투자 포인트]

1. 민간의 참여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주 산업



2. 각국의 군비지출 확대에 따른 우주항공 관련기업의 수혜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	Ae	C-P1	C-P2
선취수수료	1.0%이내	0.5%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70%	0.35%	0.85%	0.80%
운용보수	0.80%			
기타보수	수탁 0.06%, 사무관리 0.02%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채권 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9월 글로벌 채권 시장은 시장 지표 및 통화정책 발표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월초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며 따라 금리가 하락하였으며, 중순에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자 미 10년물 금리는 4% 초반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미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 이후에 파월 의장의 다소 패파적인 발언에 금리는 상승 반전하여 하락 폭을 상당 부분 되돌리며 마감하였습니다. 유럽은 9월 ECB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며 금리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 10년물 -5bp, 독 10년물 +2bp)

10월 글로벌 채권 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동반한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전월대비 상승이 예상되어 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10월 FOMC에서 Fed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여 장단기 금리차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쟁이 정치적인 이슈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프랑스는 내년 예산안으로 연정 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달 추천해드릴 상품은 글로벌 하이브리드 채권입니다. 유럽의 재정이슈는 결국 해결될 것이며 확대 재정정책은 내년도 경제성장을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의 연속 기준금리 하락은 위험자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 10년물 VS 독일 10년물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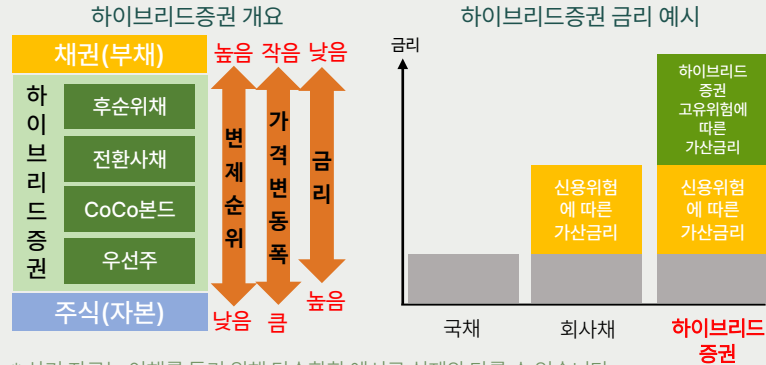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글로벌 하이브리드
증권투자신탁(H/UH)[채혼-재간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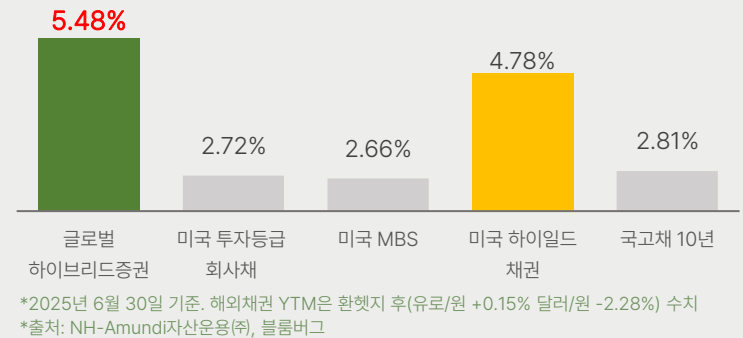
1 2 3 4 5 6
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투자 포인트]

1.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인 하이브리드증권에 투자하여 **높은 금리 수익** 추구



2. 타채권 대비 **높은 환헷지 수익률 "기대"**



3. **유력기업만 발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증권

발행 기관 예시

프랑스 전력공사	도이치뱅크
정부 소유의 프랑스 최대 전력 회사	독일 최대의 글로벌 은행
신용등급 : BBB+(S&P)	신용등급 : A(S&P)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용등급은 발행기관의 등급으로, 편입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	Ae	C-P1	C-P2
선취수수료	0.8%이내	0.4%이내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50%	0.25%	0.45%	0.42%
운용보수	0.40%			
기타보수	수탁 0.03%, 사무관리 0.015%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뢰로 함께하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

Your Trusted and Responsible Global
Investment Partner

-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또는 최신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본 자료 제공 이후 또는 이전에 발생한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표시한 제반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받은 경우 절대로 본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규약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수령하여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가 지금 현재 시점의 시장상황, 전망 등을 고려하여 귀사의 내부 참고용으로만 제작한 것이므로, 귀사는 본 자료를 투자자에게 배포하거나, 본 자료의 내용을 발췌·인용하거나 본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상품 취득의 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 해외투자상품에의 투자는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환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화표시 자산투자 시)
-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 보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수수료 외에도 추가적으로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운용현황, 시장전망 등은 참고자료로서 작성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